

취업 시장 훈풍 부는데 40대만 '찬바람'

지난해 전년대비 5만4천명 줄어...남성 꾸준히 감소 경총 "중년 맞춤형 고용정책·신산업 적응 배려 필요"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40대 취업자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경총)은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新) 고용취약계층 40대의 고용흐름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40대 취업자 수는 62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2022년보다 32만7천명 증가했지만, 40대 취업자는 5만4천명 감소했다. 40대 취업자 수는 2014년(60만명)과 비교 시 63만6천명(9.3%) 줄었다.

경총은 "40대 취업자 수 감소가 대

부분 40대 인구 감소에 기인하지만, 최근에는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 등 40대의 노동시장 참여 둔화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10년간 연령대별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40대의 경우 남성과 비임금 근로자, 제조업 부문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40대 취업자 중 남성은 367만7천명(58.7%), 여성은 258만3천명(41.3%)을 각각 차지했는데, 남성은 취업자가 꾸준히 감소한 반면 여성은 2022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또 40대 취업자 중 임금 근로자 비중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늘었지

만,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2014년과 2023년 40대 제조업 취업자 수를 비교하면 10년 사이 15만4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1만2천명 증가했다.

주된 일자리 이외 추가 소득을 얻고자 부업에 뛰어들어 40대도 늘었다. 지난해 부업에 종사한 40대는 9만8천명으로,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8만4천명 수준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이는 팬데믹 이후 경영 악화, 고금리 등 40대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 10년간 비취업자 현황을 보면 40대 실업자 수는 2018년 16만8천명을 기록한 뒤 점진적 감소세를 보이다 20

23년 12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40대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2014년과 비교해 8만5천명 감소한 158만2천명이었다.

이 가운데 남성은 2014년 대비 7만3천명 증가한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대비 15만7천명 줄었다. 남성의 노동시장 이탈 규모가 여성보다 컸던 셈이다.

4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조사 대상 기간 '쉬었다'고 한 이들은 지난해 26만5천명으로, 2014년 대비 8만명 줄었다. 이는 40대 유류 노동력 증가 현상이 심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2023년에는 40대가 59만명으로, 30대 경력 단절 여성 수(64만4천명)를 넘어섰다. 이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경총은 "과거보다 혼인 연령이 늘

어지고 출산이 늦어짐에 따라 여성 경력 단절 시기 역시 40대로 지연된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해 40대 전체 인구는 2014년 대비 약 76만명 줄어든 796만명으로 파악됐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저성장과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한 오늘날 40대 인력은 고용 안정성을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이제까지 정부 일자리 정책이 청년·고령자·여성 등에 집중돼 온 만큼 40대, 특히 중년 남성을 위한 맞춤형 고용정책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0대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별도 일자리 대책 논의와 함께 산업 전환이 40대 고용에 충격을 주지 않게 이들의 신산업 적응력을 높이는 세심한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투데이경제



롯데아울렛 남양점, 독거노인 가구 대청소

롯데아울렛 남양점이 20일 지역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 봄맞이 대청소 봉사 활동을 펼쳤다.

롯데아울렛 남양점 샷레데 봉사단은 목포시 용해동의 86세 독거노인 거주 가구를 찾아 생활 쓰레기 폐기, 먼지 제거 등 대청소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대상자는 지적 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평소 거동도 불편해 집안에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위생문제에 노출된 가구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대청소 활동과 더불어 어르신 위생 관리를 위해 집안 소독을 진행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청소기도 기부했다.

김대홍 롯데아울렛 남양점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덕을 방문해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솔기자



KT 전남전북광역본부, 임직원 헌혈 캠페인

KT 전남전북광역본부는 20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해 KT 임직원이 참여하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광주시 동구 KT 광주타워에서 헌혈버스를 이용해 열렸다.

KT 직원들과 kt cs를 비롯한 그룹사, 광주타워 입주사 직원들이 동참했으며 직접 참여하지 못한 임직원들은 헌혈증을 기부하는 등 힘을 보탤 예정이다.

수급된 혈액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매년 헌혈 캠페인에 동참하는 안기청 KT 전남남입고객담당 상무는 "헌혈이라는 작은 실천을 통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차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헌혈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현지기자

김종덕 광주본부세관장, (주)김치타운 방문

수출성장 맞춤·지속 지원 약속

김종덕 광주본부세관장은 20일 광주 남구 임암동에 소재한 (주)김치타운을 방문, 수출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주)김치타운은 100% 국산원재료와 엄격한 위생·안전관리를 표방하며 자체 브랜드 '김치家'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날 김세관장은 (주)김치타운의 최첨단 생산설비와 제조공정을 견학하고 임원진과 면담 시간을 가졌다.

정후선 (주)김치타운 대표는 "광주 김치 명품화를 선도하기 위해 기존 HACCP에 이어 지난해 3월 FSSC 2200

까지 취득했다"며 "그간 자사 제품이 FTA를 활용한 수출경쟁력을 갖추는데 광주세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에 수출성장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덕 광주본부세관장은 "지난해 세계김치연구소가 기술 컨설팅을 지원해 판매 것갈 생산기업이 EU 수출작업장 등록에 성공함으로써 김치수출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EU 복합식품 규정 난제가 해소됐다"며 "(주)김치타운의 명품김치가 숨통이 트인 EU시장을 포함해 가시적인 수출성과를 얻도록 광주세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백은성기자



신세계 '상반기 와인 창고전' 신세계백화점이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와인 할인 행사인 '상반기 와인 창고전'을 연다. 사진은 행사 상품을 선보이는 모습. <신세계백화점 제공>

광주 콘텐츠 제작 기업 '렘톤스튜디오' 프랑스 진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막마사와 8억원 규모 공동제작 협약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일 "진흥원이 지원하는 광주 콘텐츠 제작 기업 렘톤스튜디오가 프랑스 만화 출판제작사 막마(Makma)사와 글로벌 시장 출시를 위한 8억원 규모의 공동제작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

다. 렘톤스튜디오에서 제작하고 있는 '아이캔아이두(iCan&iDo)'는 2023 기획창작스튜디오 제작지원 콘텐츠로 공상과학(SF)·판타지 장르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용 만화다.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종이책, 웹툰,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학습을 위한 전용 어플리케이션인 'iCan&iDo Solution'도 오는 5월부터 정식 서비스된다.

렘톤스튜디오는 막마(Makma)사와 제작 협력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등 유럽진출, 협업을 논의하고 있

며 8월에는 자체적으로 베트남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또 아이캔아이두(iCan&iDo)를 프랑스어, 영어, 이탈리아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로 확장해 세계적인 교육 콘텐츠로 다수 국가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재복 렘톤스튜디오 대표는 "광

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도움으로 아이캔아이두(iCan&iDo)를 제작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광주시가 배출한 글로벌 교육 콘텐츠 기업으로서 더욱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주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광주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지역 콘텐츠 IP의 국내외 시장 진출 기회를 적극 지원해 기업이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지기자

<h2>토지매매 (전원토지) 농막전문</h2>	<h2>상가 매매 (상무지구)</h2>	<h2>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780평 → 매매 1억2천만 (임야) 2)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302평 → 매매 2억1천 (농막포함) 3) 장성 상오리 (장성댐 5분) 230평 → 매매 2억3천만 (농막포함) 4) 담양 무정면 (광주 20분) 853평 → 매매 5억 (개발토지) 5) 광주 서구 쌍촌동 (도로) 496평 → 매매 5억 (매년 보상나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 유용가능 (룸, 노래홀, 홀덱) 6층 (전용 60평) 7층 (전용 40평) ★ 전용 100평 ★ (분양160평) (보3천, 월수익 350만) ▶ 시세 - 13억 ▶ 급매 - 7억 (용4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기능한분) <p>▶ 경매 물건 추천 ◀</p> <p>광주 전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산구 신항동 (상가주택) ▶ 감정가6억4천→ 최저가 3억6천 남구 진월동 (상가주택) ▶ 감정가 8억3천→ 최저가8억3천 광산구 쌍암동 (상가빌딩) ▶ 감정가39억→ 최저가 27억 북구 용봉동 (카센터) ▶ 감정가 6억 → 최저가 6억 동구 학동 (상가빌딩)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4억4천 광산구 비아동 (토지,446평) ▶ 감정가 11억6천 → 최저가 9억3천 광산구 도산동 (토지,94평) ▶ 감정가 3억4천 → 최저가 2억4천 장성군 삼서면 (의료시설) ▶ 감정가 37억 → 최저가 26억 	
<p>010-6670-9800</p>		<p>062-382-5500</p>	